

# 24 원추리



백합과 알뿌리 식물인 원추리는 이른 봄에 자란다. 6~7월쯤에 원추리 꽃이 피는데, 이 꽃으로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차를 끓여 마시기도 한다.

원추리는 근심을 잊게 해주는 망우초(忘憂草)라고도 불리는데, 이름처럼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원추리를 ‘성질이 서늘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소변이 붉으면서 잘 나오지 않는 것과 답답하고 열이 나는 데 주로 쓴다. 술로 인한 황달을 치료한다.’라고 말한다.

## 원추리에는 어떤 효능·효과가 있을까요?

①	②	③	④
신경세포 손상 억제	수면개선	항우울	항산화

구분	제목	연구기관	연도	주요내용
①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에 의해 유도된 신경세포 독성에 대한 원추리의 억제효과 탐색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부산대학교 등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추리 속근의 chloroform 분획물은 1μg/mg의 Aβ25-35에 의하여 유발된 PC12 세포의 50%의 세포 생존율을 90% 수준으로 강하게 회복하는 효과</li> <li>· 원추리 속근의 유기용매 분획물들은 50μg/mg 이하의 농도에서 β-secretase의 활성을 강하게 억제</li> <li>· 원추리 속근의 유기용매 분획물에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에 의하여 유도되는 신경세포의 손상을 억제하며 β-secretase의 활성을 저해하는 유효성분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li> </ul>
②	Daylily ( <i>Hermercallis fulva</i> Linn.) flowers improve sleep quality in human and reduce nitric oxide and interleukin-6 production in macrophages	National Ilan University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추리 꽃 물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물만 섭취한 그룹에 비해 수면의 질, 수면 효율, 주간 기능이 개선되고 수면 잠복기는 감소함을 확인</li> <li>· 원추리 꽃의 물 및 에탄올 추출물이 지질다당류(LPS)로 활성화된 대식세포에서 질소산화물(NO)과 인터루킨-6(IL-6)의 생산을 억제함을 입증</li> </ul>

구분	제목	연구기관	연도	주요내용
③	The Antidepressant-like Effect of Ethanol Extract of Daylily Flowers (金針花 Jin Zhēn Huā) in Rats	National Taiwan University, China Medical University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FEtoH와 루틴은 고정 시간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수영 시간을 증가시켰으며, 추출물과 루틴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의 농도를 증가시킴.</li> <li>· 특히 장기 실험에서는 원추리 꽃 추출물이 뇌의 세로토닌 농도를 현저히 증가시키고, 세로토닌 회전을 감소시켰으나 전두엽에서는 관찰되지 않음</li> </ul>
④	원추리 지상부의 최적추출조건 확립 및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부산대학교, 대한암예방학회지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추리 에탄올 추출물의 EtOAc 분획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322.99mg Que/g으로 그 함량이 가장 높았고, 100~500 <math>\mu</math>g/ml에서 89.09~93.79%로 뛰어난 DPPH 소거활성을 가지고 있었음</li> </ul>

